

갑신년을 보내며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장 김봉균

갑신년이 조용히 저물어 갑니다. 또, 한해가 지나게 됩니다. 실로 금년은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적 격차, 청년실업, 중소기업 도산 등 많은 문제가 국내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유가인상, 테러리스트들의 준동과 국지전쟁 그리고 USS의 약세 등 국제적으로도 악재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하는 와중에서 우리 한국전기제품 안전진흥원도 바쁜 한해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혁과 급격한 변동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치는 사회의 격동과 변화 속에서 우리 주위의 여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회는 1960년대 이후 근대화의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급격하고도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물질 면에서 또 정신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변화해 왔습니다.

전기제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활제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명의 이기이며 우리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

유로이 사용하는 필수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여 제조하는 신제품 및 우수한 전기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따라서 소비자가 현명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매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또한 외국제품과 비교하여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4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을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COEX 대서양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기전자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제품의 기능이 다양화하고 이에 비례해서 안전과 전자파장해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그 동안의 전기제품의 신뢰보증과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우리 진흥원은 주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제품에 걸맞는 제대로 된 전시회가 없어서 전기제품제조업체들은 안주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전시회를 열어 우리의 전기제품과 외국제품을 한곳에 자랑스럽게 진열하여 마음껏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에게 필수품인 전기제품을 회원사가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제품 및 우수전기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외국제품과 비교하여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내 전기제품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전시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전시회 대전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기제품산업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우수 전기제품의 수출에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업체에서 또 관련 단체에서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높은 호응을 보내와 무사히 준비가 진행되어 성공리에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은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류, 조명기기류, 배선기기류 등의 품목이 출품되어 가히 가전제품의 큰 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이벤트 행사도 겸하여 금번 대전을 더욱 뜻 깊게 하였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설명회와, 중국의 강제인증제도인 CCC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미국전자파인증제도(TLMO)와 한미 IT기기 교역 및 투자상담을 겸하는 미국 전자파 인증관련 기술세미나와 전기용품안전기술기준 설명회가 열려 전기용품제조업체, 수입업체, 시험인증기관, 그리고 관련자 및 관련단체의 욕구를 만족시켰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진흥원 QC 및 경영교육, 불법·불량전기제품단속, PL(제조물책임)교육과 같은 감시위주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와의 어느 정도 경직된 관계가 형성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러한 경직된 관계를 완화하고 화합적이고 상호 공조적인 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주도적인 향도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제품의 수출의 견인차로서 진흥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기제품의 활로요 동시에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밖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전시회를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진흥원은 그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대전이 매년 발전하여 우리전기제품업체의 건전한 대화의 장이 되어 연구개발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수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실로 금년이야말로 우리 진흥원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층 분발하여 다가오는 대망의 2005년에는 새로 태어나는 위대한 해가 될 것을 금년을 마감하며 기원해 봅니다. 